

도시주부의 혼례의식 ·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

-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

(숙명여대 교수) 이 정 우

(숙명여대 강사) 김 명 나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I. 서 론

우리사회는 근대화이후 여러 나라 문화의 유입과 함께 1960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로 산업화 및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부분에서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여, 산업·경제구조의 변화는 물론이고 가족구조에 있어서도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양식, 인간관계 및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사회 전부분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혼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일반적으로 약혼, 합들이, 혼인식, 신혼여행 등으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혼례절차나 규모도 많이 변화하였으며, 혼수규모의 전반적인 증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으나 뚜렷한 가치관 부재로 인한 혼란,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물질만능주의와 상업화로 호화약혼식이나 혼인식, 과다혼수 등 전반적인 혼례가 허례허식화되어 과소

비, 사치 풍조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 혼례문화를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혼례를 수행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부측 혼수의 과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90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993, 1996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대부분의 신혼기 주부들이 의례적인 혼인비용지출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기춘·조은정, 1992 : 111) 주부의 혼례행동이 합리적일수록 혼례만족이 높은 것을 볼 때(이정우·김명나, 1997 : 13), 혼례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혼례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혼례행동의 실천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볼 때,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지금까지의 혼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나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이길표, 1982 ; 이행숙, 1982 ; 한경순, 1986 ; 김명나, 1989 ; 손유미, 1990 ; 장은영, 1990 ; 유현주, 1991 ; 이선영, 1992 등). 간혹 사회학 분야에서 혼수 및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김모란, 1994 ; 최경숙, 1995), 혼례행동과 혼례만족을 관련지은 연구(이정우·김명나, 1993, 1997)는 극히 적을뿐 아니라 배우자선택이나 혼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박민자, 1990 ; 박숙자, 1990 ; 이기춘·조은정, 1992 ; 정용선 외, 1995). 따라서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혼례에 있어서 가부장적 사고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존도가 높고(이기춘·조은정, 1992 : 111 ; 김모란, 1994 : 69 ;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 57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 11) 부모들이 혼례혼수를 주관하는데서 생겨나는 과소비, 낭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혼인당시 혼인당사자이며 신부였던 비교적 젊은층 주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자신의 딸의 혼례과정이나 혼수장만 등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딸을 혼인시킨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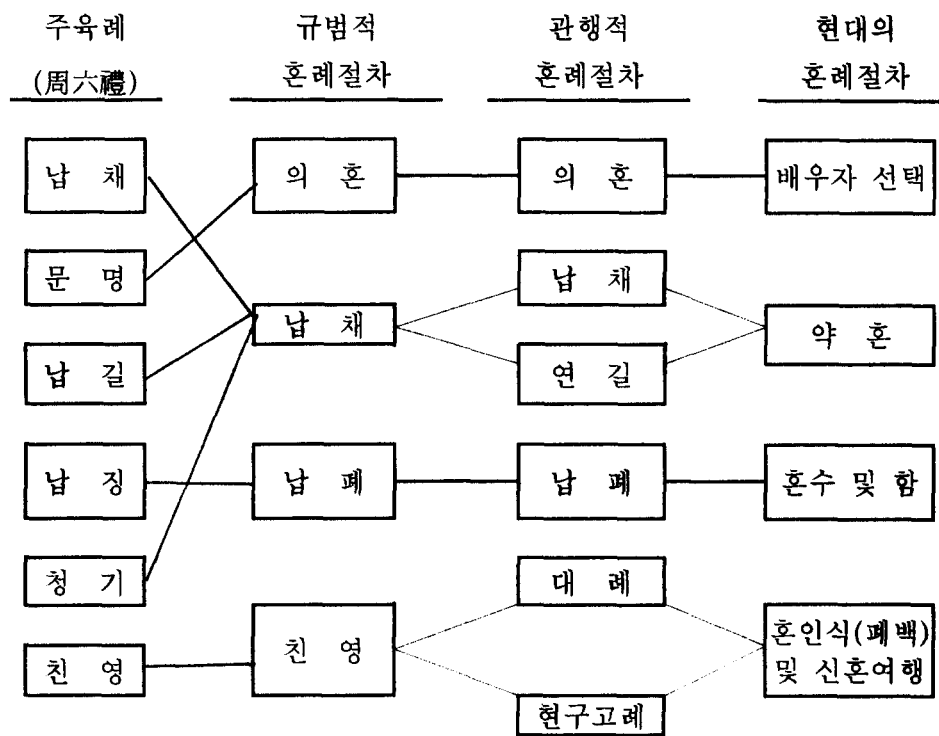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혼례로 빚어지는 사회문제를 직시하여, 신혼기 주부와 딸을 혼인시킨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례의식과 실제 행한 행동 및 혼례후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혼례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혼례절차의 모든 단계 및 혼수장만 등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혼례후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¹⁾

1. 혼례의 의의 및 절차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혼례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전통혼례의 의혼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날의 배우자선택으로, 납채(연길 포함)에 해당하는 것을 약혼으로, 납폐에 해당하는 것을 혼수 및 함으로, 대례(현구고례 포함)에 해당하는 것을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으로 연결시켜 구성하였다.

이상의 혼례절차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 혼례절차의 변천과정

2.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근래에는 과거에 비해 혼례의식이 가문중심의 전통사상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적인 입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혼례에 대한 의식도 비교적 근대적으로 나타났다(한경순, 1986 ; 이길표·주영애, 1989 ; 박진숙, 1990 ; 이정우·김명나, 1993). 혼례행동은 본인의사를 중시하며 대외적·과시적인 체면의식이 높게 작용하여 행해지고 있으나

1)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의 자세한 내용은 숙대 박사학위논문인 “도시주부의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김명나, 1998)”을 참고.

(이길표, 1989 ; 이길표·주영애, 1989 ; 손유미, 1990), 혼례에 대한 행동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타났다(이정우·김명나, 1997).

혼례의식과 혼례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혼례에 대한 의식은 자기분수와 형편에 맞게,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여 검소하게 해야 한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 82). 주부의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간에는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부의 혼례에 대한 의식은 행동보다 근대적이었다(손유미, 1990 : 69 ; 이정우·김명나, 1993 : 43).

3. 혼례만족

혼례의식이나 혼례행동이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이정우·김명나, 1993, 1997)보다는 주로 배우자선택이나 혼수가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혼례행동은 혼례만족에는 영향을 미치나 특히 혼수는 혼인생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주부들의 혼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혼례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관계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혼례의식과 혼례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부의 혼례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으로 나타났다(김명나, 1989 : 69-71 ; 손유미, 1990 : 54). 혼례의식과 혼례만족과의 관계에서는 주부의 혼인식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혼례행동과 만족간의 관계에서는 주부의 혼인식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일수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이정우·김명나, 1993 : 40-43).

또한 혼례행동과 혼례만족간의 관계에서 주부의 혼수장만은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쳐 혼수장만이 합리적일수록 혼례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부의 혼수장만은 혼례만족에 직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배경변인이 혼수장만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쳐 혼수라는 변인이 혼례만족의 중요한 매개변인임이 밝혀졌다(이정우·김명나, 1997 : 13).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은 혼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은 혼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은 혼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1) 혼례의식

혼례의 절차를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 및 함, 폐백 등의 4단계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한 주부의 의식이 어느 정도(근대적 혹은 전통적)인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혼례의식이 근대적이라는 의미는 전통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적 의식이라 함은 조선조를 기점으로 한 전통사회의 색채가 강한 형식을 추구하는 혼례에 중점을 둔 의식이며, 근대적 의식은 산업화·서구화 등으로 인하여 근대화가 이루어진 후 편의주의와 개인주의 색채가 강화되고 간소화된 혼례에 중점을 둔 의식을 의미한다.

2) 혼례행동

혼례의 절차를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장만 및 함들이,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등의 4단계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해 주부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실제로 수행한 정도(합리적 혹은 비합리적)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 혼례행동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비합리적이라는 말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근래에 보편화된 혼례에 중점을 두어 혼례를 실리적이며 검소하게 치루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혼례만족

혼례절차(배우자선택, 약혼, 혼수장만 및 함들이,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등)의 각 단계를 실제로 행한 후 주부가 느끼는 만족정도 즉, 혼례행동 후에 느끼는 주부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3.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혼인한지 5년이내의 주부와 최근 5년 이내에 딸을 혼인시킨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 혼인기간(5년이내)을 제한한 것은 혼례를 치른 후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강남, 강북, 강동, 강서로 나누고 거기서 다시 몇개의 구를 선정하여 표집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12월 10일 부터 1998년 1월 15일 까지 실시하였고 총 1000부(신혼기주부 : 500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 500부)를 배부하여 902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혼인한지 5년이상이거나 기재가 미흡한 것을 제외한 790부(신혼기주부 : 402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 388)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Cronbach의 알파계수 · VIF지수 ·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 빈도 · 백분율 · 평균 · 표준편차 · T-test · 회귀분석 ·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²⁾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1>, <표2>

2.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혼례행동·혼례만족의 일반적 경향 및 차이 <표3>

3.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1) 신혼기주부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표4>

신혼기주부의 혼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객관적 변인에서는 혼인형태($\beta = .17$), 직업유형($\beta = .09$)이고, 주관적 변인에서는 혼인거래관행인지도($\beta = -.26$), 물질주의 성향($\beta = -.20$), 준거집단영향력($\beta = -.11$), 자아긍정감($\beta = .10$), 친가생활수준인지도($\beta = -.10$)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3%였다.

2)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표5>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볼 때, 객관적 변인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주관적 변인으로는 혼인거래관행인지도($\beta = -.32$), 물질주의 성향($\beta = -.27$)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6%였다.

3)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는 신혼기주부와는 달리 혼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객관적 변인의 영향은 없었으며 주관적 변인의 영향력만 나타난 점을 볼 때, 신혼기주부보다는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이나 인지정도가 혼례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건전 혼례문화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 향상 및 재정립 형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2) 본문에서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표, 그림을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발표 당일 따로 제시할 것임.

4.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1) 신혼기주부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표6>

신혼기주부의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볼 때 객관적 변인에서는 혼인 형태($\beta=.12$), 주관적 변인에서는 준거집단영향력($\beta=-.29$), 물질주의성향($\beta=-.19$), 혼인거래관행인지도($\beta=-.17$), 친가생활수준인지도($\beta=-.16$), 시가생활수준인지도($\beta=-.10$)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8%였다.

2)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표7>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객관적 변인에서는 기혼 딸의 혼인형태($\beta=.10$), 월평균가계소득($\beta=-.08$)이고, 주관적 변인에서는 준거집단영향력($\beta=-.35$), 자아긍정감($\beta=.23$), 혼인거래관행인지도($\beta=-.19$), 기혼딸의 생활수준인지도($\beta=-.17$), 물질주의성향($\beta=-.13$)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3%였다.

3)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신혼기주부는 연애혼을 한 경우와 기혼 딸을 가진 어머니는 딸이 연애혼을 한 경우, 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준거집단영향력이 낮을수록,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을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수장만할 때의 상업주의의 영향과 약혼식·혼인식에 있어서 예식업소의 강요와 바가지 상혼 등 기존의 관례와 폐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혼례를 준비하는 주부들이나 혼인을 앞 둔 여성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지양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혼인적령기 여성이나 자녀를 혼인시킬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신혼기주부 및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의식이 혼례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8>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가 혼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례를 합리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부들의 근대적인 혼례의식 함양과 함께 혼례에 대한 건전한 의식이 혼례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부들의 혼례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이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6.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변인·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

1) 신혼기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변인·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변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신혼기주부의 혼례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3개의 군으로 형성된 변인을 대상으로 세 번의 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이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과효과는 <표9>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 2)의 인과모형을 도식화하였다.

신혼기주부의 혼례만족에 미치는 변인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혼기주부의 혼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객관적·주관적 변인에서는 시모와의 친밀감 및 상호작용($\beta=.34$), 소득적정감($\beta=.17$), 학력($\beta=.16$), 자아긍정감($\beta=.12$), 물질주의성향($\beta=-.11$), 혼인형태($\beta=.09$) 등으로 나타났고, 혼례행동변인에서는 혼수장만 및 함들이($\beta=.24$), 약혼($\beta=.14$)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혼례만족의 전체 변량의 38%를 설명하고 있다.

신혼기주부의 혼례만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매개변인으로 혼례의식변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혼기주부의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은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신혼기주부가 배우자선택에 대한 근대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을수록 혼수장만 및 함들을 합리적으로 하게되어 혼례만족이 높아지는데,

배우자선택에 대한 근대적인 의식을 지닌 주부는 가족주의적 성향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 것이므로 신랑 집안이나 주위의 이복에 집착하지 않고 검소하며 실리적인 혼수장만 및 함들이가 가능하여 혼례만족도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신혼기주부의 약혼에 대한 의식은 약혼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신혼기주부가 약혼에 대한 근대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을수록 약혼을 합리적으로 하게되어 혼례만족이 높아지는데, 약혼에 대한 편의주의적 의식이 강한 주부일수록 약혼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치루는 등 건전한 약혼을 행하게 되므로 혼례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혼기주부의 폐백에 대한 의식은 약혼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신혼기주부가 폐백에 대한 근대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을수록 약혼을 합리적으로 하게되어 혼례만족을 증진시켰다.

매개변인으로 혼례행동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혼기주부의 약혼은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약혼만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혼례의식 변인 중 약혼, 폐백에 대한 의식을 경유한 다음 다시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혼기주부의 혼수장만 및 함들이는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수장만 및 함들이만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을 경유한 다음 다시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혼례의식은 혼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혼례행동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신혼기주부의 혼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이며 이로 인하여 혼례만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혼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의주의적이고 간소화된 건전한 혼례의식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합리적인 혼례행동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된다면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2)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변인·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객관적·주관적 변인, 혼례의식 및 혼례행동이 혼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신혼기주부와 마찬가지로 세개의 군으로 형성된 변인을 대상으로 세번의 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이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과효과는 <표 10>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3)과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만족에 미치는 변인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 변인 중 기혼딸의 생활수준인지도($\beta=.28$), 기혼자녀와의 친밀감 및 상호작용($\beta=.17$), 물질주의성향($\beta=-.14$) 등으로 나타났고,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beta=-.23$), 혼수장만 및 함들이($\beta=.19$)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혼례만족의 전체 변량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례만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매개변인으로 혼례의식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약혼에 대한 의식은 객관적·주관적 변인 중 물질주의성향, 준거집단영향력,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고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은 물질주의성향,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혼에 대한 의식은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가 약혼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수장만 및 함들을 합리적으로 하게되고 이에 따라 혼례만족이 높아지고 있다.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은 혼례만족에 대한 직접효과와 더불어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다.

여기서 약혼에 대한 의식은 근대적일수록, 반면에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은 전통적일수록 혼수장만 및 함들을 합리적으로 하게되고 이 혼수장만 및 함들을 합리적으로 할수록 혼례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가 혼수 및 함에 대한 근대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불합리한 사회제도나 규범의 영향을 받아 바람직하지 못한 혼례행동을 초래하게 되어 호화혼수 문제 및 지나친 격식위주의 함들이 행사가 행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전한 혼례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인 의식개혁과 더불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요구된다.

매개변인으로 혼례행동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수장만 및 함들이는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수장만 및 함들이만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객관적·주관적 변인이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혼례의식변인(약혼, 혼수 및 함)을 경유한 다음 다시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혼수장만 및 함들이는 혼례행동변인 중 유일하게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딸을 혼인시킨 어머니들이 혼례의 전 과정에서 혼수장만이나 함들을 감소하게 하고 실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혼례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어 혼인적령기 딸을 둔 어머니들이 혼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신의 딸을 혼인시킬 때, 무엇보다 혼수장만 및 함들이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의 인과관계 비교

인과관계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신혼기주부는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이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나,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는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이 혼수장만 및 함들을 경유하여 혼례만족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근대적인 배우자선택관을 지닌 신혼기주부일수록 합리적인 혼수장만 및 함들이를 하게되어 혼례만족이 높았는데, 앞으로 미혼여성들이 중매혼을 할 경우 혼수장만이나 함을 받을 때도 부모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체면의식이 강한 양가 부모를 잘 설득시켜서 합리적인 혼수장만 및 함들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는 혼수 및 함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수장만 및 함들이를 비합리적으로 하게되고 이에따라 혼례만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는데,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혼수나 함에 대해 건전한 의식을 확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혼수장만 및 함들이가 혼례만족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나 주부가 혼수장만 및 함들이를 합리적으로 할수록 혼례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즉 혼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부들의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혼수장만 및 함들이를 감소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혼례만족의 충족요건이 혼수장만 및 함들이의 합리적인 실천에 있음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신혼기주부는 혼수장만 및 함들이 이외에 약혼이 혼례만족의 매개변인으로 나타나 신혼기주부의 약혼이 합리적일수록 혼례만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혼인당사자들에게 감소한 혼수장만 및 함들을 권장하고 간소한 약혼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건전한 혼례행동에 대한 학교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자신의 불건전한 혼례행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계몽할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는 모두 비교적 근대적인 혼례의식과 합리적인 혼례행동을 하고 있으며 혼례만족은 다소 높은 편이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7년 말까지 우리나라가 과소비적 혼례양상³⁾을 보였으나, IMF한파 이후 혼례에도 점차 거품이 빠지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알뜰 결혼식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였다(조선일보, 1998. 1.14 : 13면). 그리고 오늘날 여러 단체(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전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여성민우회 등)에서 바람직한 혼례모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중앙일보, 1998. 4.21 : 26면), 각 시민단체의 지도, 계몽과 더불어 매스컴에서 건전혼례모델을 지속적으로 홍보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혼례문화가 정착되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혼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물질주의성향과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혼례의식을 나타냈다. 산업의 발달과 상업화 등의 영향으로 물질주의가치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혼례에서 주부들 스스로가 물질주의 가치지향에서 벗어나 감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그러한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물질제일주의 가치에서 인간중심적인 가치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조속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혼례건전화를 홍보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선도적인

3) 우리나라 평균 혼례비용은 7,500만원으로 근로자월급의 35달치와 총비용 국가예산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4.8배, 일본의 3.8배(IMF 환율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7. 10.18).

역할과 미혼남녀나 혼인적령기 남녀 및 자녀들을 혼인시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연애혼을 한 경우, 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준거집단영향력이 낮을수록,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을수록 혼례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애혼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혼례행동의 간소화나 합리화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배우자 선정의 주체를 자녀에게로 이양하였듯이 가정관리자가 될 자녀에게 혼례절차와 혼수장만 및 준비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이양하여 자녀들이 의사결정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혼례의 상업화로 인하여 의례절차나 구입상품이 더 고급화·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요즈음, 혼례에서 체면의식이나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아 혼례 행동에서 더욱 과소비나 과시적 소비풍조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혼인적령기 여성들이나 자녀를 혼인시킬 여성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넷째,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혼례의식은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쳐 혼례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들이 혼례행동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적인 혼례의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혼례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주부들의 적극적인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섯째, 혼례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 혼수장만 및 함들이로 나타났으며, 혼수장만 및 함들이를 합리적으로 할수록 혼례만족이 높았다. 환언하면 혼수나 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소비와 허례허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혼수장만 및 함들이는 주부들의 혼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는 혼수장만 및 함들이가, 신혼기주부는 약혼과 혼수장만 및 함들이가 혼례만족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체 혼례행동에 있어서 신부측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약혼과 혼수장만의 감소화 또는 합리화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와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혼례의식과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 척도의 구성내용을 배우자 선택, 약혼, 혼수 및 함,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등의 4단계로 제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혼례절차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혼례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혼례 척도의 정교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혼례 양상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과 계층을 고려한 세세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건전한 혼례와 불건전한 혼례를 치른 여러 사례들을 덧붙여서 심층적으로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딸의 혼수장만 등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친정어머니이지만 시어머니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므로 딸과 친정어머니 및 시어머니를 함께 포함시켜 혼례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척도개발과 표집에 의한 혼례가 연구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건전혼례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명나,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9.
- 김모란,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 박민자, “도시 중간계층의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연구”,
-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 또하나의 문화, 1991.
- 박숙자,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 또하나의 문화, 1991.
- 박진숙,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 손유미, “서울거주 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1.
- 유현주, “미혼남성의 결혼의식 및 결혼비용 지출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91.

- 이기춘·조은정,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92.
- 이길표,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혼·제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1982.
- 이길표·주영애,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의 관계연구”, 성신연구논문집, 1989.
- 이선영, “혼인행사에 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
-서울시 거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2.
- 이정우·김명나,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 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혼식·제사·회갑연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지 8,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소, 1993.
- _____, “도시주부의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 1997.
- 이행숙,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의식과 혼비지출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2.
- 장은영, “도시주부의 혼수관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0.
- 정용선 외,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995.
- 최경숙, “결혼 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 교환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 한경순, “혼·상·제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6.
- 조선일보, 1997.10.18.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세미나(소비자보호 세미나), 1990.3.20.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혼수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1990.
- _____,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 1993, 1996.
-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모색, 1997.
- 한국소비자보호원, 혼수실태조사 결과, 1990, 1997.